

류승수 "31년째 공황장애...처음엔 '심장병' 오진"

등록 2021.06.24 09:46:27



[서울=뉴시스] 류승수가 31년째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사진 = 카카오TV '전경규' 캡처) 2021.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성유민 인턴 기자 = 배우 류승수가 31년째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23일 공개된 카카오TV '전경규'에는 이경규처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유재환, 솔비, 류승수가 '공황장애 캠프'의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류승수는 "31년째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처음 시작된 것은 1990년이였다. 공황장애라는 병명도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다"며 운을 뗐다.

류승수는 "처음 공황장애를 느꼈을 때 버스에서 앉아 있다가 쓰러졌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차를 세우고 내가 괜찮은지 물었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발 끝부터 내 몸이 녹는 기분이 들더라"고 떠올렸다.

이어 그는 "바닥에 누워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다. 그 순간 옆집 아저씨가 마당에 나온 것을 봤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 응급실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당시 받은 진단명이 M.V.P라 불리는 승모판 이탈증, 심장병 진단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그 병이 공황장애와 증상이 매우 유사해서 오해를 많이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류승수는 "한 달 입원을 했고, 이후 7년간 심장병 치료를 받았다. 그 후 뒤늦게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만성성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msu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